

# 國樂 레코오드의 整理에 관한 研究 (完)

—國文目錄 作成을 위한 規則 試案—

孫 正 彪  
(建國大學校 中央圖書館)

(2) 표제의 용어

통일표제에 사용되는 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택한다.

1. 구한악의 아악곡명

속명과 아명, 별명, 구성 및 내용으로 분리하여 속명의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하였다. 단 연주수단에 의해 구별되는 곡이나 수개의 악곡으로 집대성된 악곡으로 부표제가 있는 곡명은 통일표제 아래 기입하고 그 개별 악곡명은 통일표제로 채택된 곡명으로 “보라” 참조(→) 표시를 하였다.

아래 아명과 속명의 대비표에서 ※표시는 통일표제로 채택되지 않은 곡명을 의미하며 ★표시는 단순히 제향(祭享)에 연주되는 수개의 악곡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레코드에 개별 곡명으로 취급되었을 때는 그 개개의 악곡명으로도 통일표제를 채택 함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凝安之樂—黃鍾宮

新世紀 민 1240—2 1968

(이 곡은제례악(祭禮樂)으로文廟樂의 한악곡이다.)

俗 名 雅 名 別 名 構 成 及 演 奏 手 段

1. 加樂還入

(1) 加樂還入, 羽調

(2) 加樂還入, 界面調

※ 2. 거문고會相 重光之曲 兩淋鈴 鉉樂; 羽調界面調

→靈山會相 絃(絲)풍류

★ 3. 景慕宮祭樂

樂曲:

(1) 熙運之樂

1. 於 休

2. 進 索

3. 維吉의 3樂章

(2) 隆恩之樂

1. 飾 慶

2. 休 運

3. 徽柔의 3樂章

(3) 肅安之樂

1. 赫 估

의 3樂曲으로 됨.

※ 4. 界面加樂還入 千年萬歲 鉉樂; 管樂

→加樂還入

※ 5. 管樂步虛子 長春不老之曲

→步虛子

※ 6. 管樂靈山會相 表正萬方之曲 三鉉靈山會相 管樂

→靈山會相

대(笑)풍류

7. 길군악 折花 管樂

8. 길타령 月昇月恒之曲 兩淋鈴 管鉉樂

9. 洛陽春 管樂; 옛날엔 鉉樂이 있음.

10. 大吹打 武寧之曲 舊軍樂 打樂器

★ 11. 文廟樂 各樂曲은 合樂으로 演奏

樂 曲:

(1) 凝安之樂

1. 黃鍾宮

2. 仲呂宮

3. 南呂宮

4. 夷則宮의 4樂曲

(2) 明安之樂

1. 南呂宮

(3) 成安之樂

1. 南呂宮

(4) 舒安之樂

1. 姑洗宮

(5) 娛安之樂

1. 南呂宮

이상 5樂曲으로 形成됨

12. 別曲 呈祥之曲 千年萬歲 鉉樂

13. 別羽調打令 金殿樂 管鉉樂

14. 明安之樂

→文廟樂

- 15. 保太平  
→宗廟樂章
- 16. 步虛詞 黃河清 絃樂 步虛子라고 함
- 17. 步虛子 長春不老之曲 原來合樂
- (1) 步虛子, 管樂
- (2) 步虛子, 合樂
- ※18. 本令 太平春之曲 管樂  
→與民樂令
- 19. 사관풍류 慶豊年 管樂  
(1) 사관풍류, 管樂  
(2) 사관풍류, 絃樂  
(3) 사관풍류, 생황과 단소  
樂 曲 :  
(1) 羽調頭學  
(2) 變調頭學  
(3) 界面調頭學  
(4) 平 弄  
(5) 界 樂  
(6) 編數大葉의 6曲으로 됨.  
이 사관풍류의 악곡은 몇개곡씩 합쳐서 아명으로 된  
부분곡명을 가지고 있다.  
(1) 慶豊年→羽調頭學  
(2) 水龍吟→界面調의 平弄, 界樂, 編數大葉  
(3) 艷陽春→界面調의 頭學, 또는 頭學, 平弄, 界  
樂, 編數大葉으로 이루어져 있다.
- ※20. 三絃還入 威寧之曲 管樂  
→靈山會相
- 21. 舒安之樂  
→文廟樂
- 22. 成安之樂  
→文廟樂
- 23. 細還入 頌九如之曲 瑞鷓鴣 管樂
- 24. 肅安之樂  
→景慕宮樂祭
- 25. 兩清還入 桂木曲 絃樂
- 26. 與民樂 昇平萬歲之曲 五雲開瑞朝 管絃樂
- 27. 與民樂令 太平春之曲 本令 管樂
- 28. 與民樂慢 景錄無疆之曲, 萬葉織瑠曲 管樂
- 29. 與民樂解令 瑞日和之曲 管樂
- 30. 念佛打令 獻天壽 管樂念佛

- (1) 念佛打令, 細樂
- (2) 念佛打令, 생황과 단소(현은 양금과 단소)
- (3) 念佛打令, 大箏(혹은 피리, 단소 등의 독주곡  
임)
- ※31. 念佛還入 玉連環之曲 管樂  
→靈山會相
- 32. 靈山會相  
(1) 靈山會相, 絃樂 羽調界面調 (거문고 會相이라  
고 함)
- (2) 靈山會相, 管樂 羽調界面調
- (3) 靈山會相, 絃樂 平調(平調會相이라고 함)
- 靈山會相의 樂曲名 :  
(1) 上靈山 (2) 中靈山 (3) 細靈山 (4) 加樂除  
只(가락더드리라고도 함) (5) 三絃還入 (6) 下絃  
還入 (7) 念佛還入 (8) 打令 (9) 軍樂의 9樂章  
으로 되어 있으나 管樂靈山會相과 平調會相은 下  
絃還入이 없다.
- 33. 雍安之曲  
→宗廟樂章
- ※34. 羽調加樂還入  
→加樂還入
- 35. 維皇曲 管樂
- 36. 隆恩之曲  
→景慕宮樂祭
- 37. 凝安之樂  
→文廟樂
- 38. 定大業 界面調  
→宗廟樂章
- 39. 井邑 壽濟天 빛가락정음 管樂
- 40. 宗廟樂章 合樂  
樂曲名 :  
(1) 保太平  
ㄱ. 熙文 ㄴ. 奠幣熙文 ㄷ. 基命  
ㄹ. 歸仁 ㅍ. 享嘉 ㅎ. 輯寧  
ㅊ. 隆化 ㅋ. 顯美 ㅌ. 龍光貞明  
ㅍ. 重光 ㅋ. 大猷 ㅎ. 繹成  
의 12曲으로 되어 있음.  
(2) 定大業  
ㄱ. 昭武 ㄴ. 篤慶 ㄷ. 濯征  
ㄹ. 宣威 ㅍ. 神定 ㅎ. 奪雄  
ㅊ. 順應 ㅋ. 寵綏 ㅌ. 靖世  
ㅍ. 赫整 ㅋ. 永觀  
의 11曲으로 됨.  
(3) 豊安之樂

(4) 雍安之樂

(5) 興安之樂

41. 淸聲數大葉 堯天舜日 令八仙 管朱器  
之曲

淸聲자진 獨奏曲입  
한입

(1) 淸聲數大葉 것대

(2) 淸聲數大葉 단소 등

※42. 淸聲자진 한입

→淸聲數大葉

43. 吹打 萬波停息 壽耀南極 管絃樂, 大吹  
之曲 之曲 打的 管絃樂編  
曲 입.

※44. 平調會相 柳初新之 醉太平之 絃樂; 平調  
曲 曲

→靈弓會相

45. 豐安之樂

→宗廟樂章

46. 鄉唐交奏

鄉樂과 唐樂의  
交奏

※47. 解令 瑞日和之  
曲

→與民樂解令

48. 與安之樂

→宗廟樂章

49. 熙運之樂

→景慕宮祭樂

이밖에 아악곡은 아니지만 아명이 있는 것으로는  
歌曲(俗名) 萬年長歡之曲(雅名) 管絃樂伴奏民俗樂으  
로 악곡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散 調 獨奏曲입

1. 散調, 거문고

2. 散調, 가야금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구한악의 악곡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곡명호  
칭에 관하여는 張師勵 著, 國樂概要를 참조하기 바란  
다.

ㄴ. 국악의 악곡형식

필자의 조사에 의해 여러가지 문헌 가운데서 밝혀진  
악곡형식 몇가지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악곡의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 표제의 일부를 형성  
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형식에 따라 통일표제를 채택  
한다.

1. 歌 曲 (歌樂이라고도 함)

2. 雅樂曲

3. 歌 詞

4. 民 謠

5. 時 調

6. 詩 唱

7. 誦 書

8. 雜 歌

9. 立 唱

10. 唱 劇

(이는 다시 판소리, 唱劇調, 판노름 廣大소리,  
唱調, 唱辭, 劇唱, 唱樂, 國劇, 劇歌, 등 수가지  
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는 唱劇으로 통일한다.)

11. 短 歌

12. 佛 歌

13. 練習曲

14. 室內樂曲

이 室內樂曲은 그 악기편성에 따라 몇가지로 구  
분된다. 필자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까지 다음의  
5가지가 있다.

二重奏

三重奏

四重奏

五重奏

六重奏

15. 散 調

16. 시나위

17. 獨奏曲

18. 合奏曲 (양악에서는 협주곡이라 함)

19. 變奏曲

20. 聖 歌

21. 室內合奏曲

22. 併奏曲

23. 重奏曲

24. 舞 曲 (舞踊劇 音樂이라고도 함)

25. 管絃曲

26. 吹打曲

27. 組 曲

28. 序 曲

29. 合唱曲

30. 農 樂

31. 併 唱

32. 詠 詩

33. 梵 唄

(이는 악곡형식이라기 보다 악곡명에 해당 하겠  
으나 편의상 악곡형식에 넣었다.)

34. 協奏曲

35. 即興曲 (舊韓樂의 散調와 같음)

36. 小 品

37. 隨想曲

이상 몇가지의 악곡형식을 들어 보았다.<sup>35)</sup>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에 수록된 것 뿐 아니라 수록되지 않은 악곡들이라 하더라도 동일표제를 채택할 경우는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回心曲 性獨唱]

悔心曲

新世紀 SLN 10608

(이의 통일표제는 張師勛 著, 國樂概要에서 채택함)

(3) 곡 집

(가) 전집(신한악시대의 작품)

ㄱ. 한사람의 작곡자의 모든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은 그 통일표제를 <작품전집>으로 한다.

ㄴ. 넓은 의미이든 좁은 의미이든 여러가지형의 연주 수단에 의한 모든 작품을 모은 것은 <……작품전집> 혹은 <……곡전집>이라는 말을 기재한다.

[관현악곡전집]

[취타곡전집]

ㄷ. 한개의 악곡형식이나 동일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작곡을 모은 곡집의 통일표제는 그 악곡형식이나 카테고리명을 취하고 연주수단이 있을 경우는 그 뒤에 연주 수단을 부기한다.

[무곡전집]

[시조집]

ㄹ. 악곡형식이나 카테고리명만으로도 연주 수단이 명백하던지 여러가지 연주 수단을 포함하고 있을때는 연주 수단을 생략한다.

[관현악곡전집]

(나) 선집(전집 아닌 곡집)

ㄱ. 한개의 연주 수단이나 악곡형식에 의해 곡을 모으지 않고 수개의 작품중에서 선택하여 곡집으로 한 것은 그 통일표제를 <작품선집>으로 한다.

김 기 수

[작품선집]

ㄴ. 편의적으로 한개의 연주수단이나 악곡형식에 속한 작품을 모았어도 그것이 전 작품이 아닐 경우 그 통일표제는 <……집>, 혹은 <……곡집>이라 하고 그 뒤에 <선집>이라 “보기”한다.

[관현악곡집. 선집]

그러나 그 선집이 축차번호 또는 작품번호를 가진 작품으로 계속적인 번호로 되어 있을때는 <선집>이라는 말대신에 처음과 끝의 번호를 기입한다.

이 성 천

중주곡 제1-7번

(4) 발채곡(拔萃曲)

ㄱ. 그 작품이 어느 작품의 일부분을 발채한 것일때는 전곡(全曲)의 통일표제를 채택하고 그 뒤에 발채곡의 표제를 대쉬로 결합시킨다. (이의 종류는 창극에서 많이 볼 수 있다.)

水宮歌—水國의 용왕탄식

新世紀 민 1240—18 1868

ㄴ. 두개 이상의 악장(樂章)으로 되어 있는 작품중 한개의 악장만을 발채한 것은 그 발채된 악장을 끝에 기재한다. 대체로 구 한악의 아악곡이나 신 한악의 관현악곡을 보면 한개의 악곡이 수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다. 문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개별 악장마다 독립된 이름이나 별명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악장만을 기재한 것이 있다.<sup>36)</sup>

[靈山會相 管樂 羽調界面調 第1樂章]

表正萬方之曲(上靈山)

新世紀 민 1240—11 1968

(이는 管樂靈山會相의 第1樂章인 上靈山의 拔萃曲임)

이러한 발채악장이 독립된 이름이나 별명, 통칭 등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이름은 여기에 기재치 않고 이들 이름으로부터 <보다> 참조를 한다.

[靈山會相 管樂 羽調界面調 第6樂章]

玉連環之曲

公報室 放送管理局 13 1959

(이것은 管樂靈山會相의 6계 악장인 念佛入으로 독립된 이름만이 아니고 개별 아명까지 있다. 이의 경우는 念佛還入과 玉連環之曲으로부터 참조를 내 준다.)

ㄷ. 창극이나 무용곡 등으로 축소(縮少) 또는 발채(拔萃)된 것은 발채표제가 없을 경우는 그 작품의 통일표제 뒤에 다만 <발채>라는 한정어(限定語)를 보기 한다. 그러한 일반적으로 조곡(組曲)으로 더 알려져 있을 때는 발채라 하지 않고 <조곡>이라는 말을 보기 한다.

서곡(序曲), 전주곡(前奏曲), 무용조곡(舞踊組曲)도 이와 같이 한다.

[回心曲 女性獨唱 拔萃]

悔心曲

新世紀 SLN 10608

(이것은 불가조(佛歌調) 回心曲의 재미있는 대목

註 35) 여기에 조사된 악곡 형식은 필자가 다음의 책에서 조사한 것이다.

李惠求, 成慶麟, 李昌培 共著. 上揭書.

韓國藝術志 1, 2卷.

李昌培 編. 上揭書.

만 발채하여 소리조로 엮은 것이다. 그래서 불가(佛歌)인 回心曲을 구별하여 불가조 回心曲과 소리조 回心曲이라 하기도 한다.<sup>37)</sup> 따라서 이를 원곡과 발채곡으로 구별하는 대신에 불가조와 소리조라는 한정어를 보기 해도 좋다.)

[大吹打 吹奏樂 序曲]

舊軍樂序曲

(1966년 國樂藝術學校 第3回 定期公演의 연주곡임)

(5) 편작곡 및 편곡

구 한악이건 신 한악이건 기악곡이나 가곡 및 기타 악곡형식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간략화, 확대 등으로 편작, 편곡 혹은 개작된것은 원작품의 통일표제를 취하고 그 통일표제 뒤에 <편곡>이라는 말을 보기 한다. 그러나 거의 완전히 편작된 작품은 편작의 표제를 통일표제로 한다.

[사관풍류 수룡흥 생황과 단소 편곡]

水龍吟 笙簫並奏

KBC 12

(원곡은 성악곡 임)

[길군악 관현악 편곡]

(길군악의 원곡은 관악곡 임. 1965년 제6회 국악연구발표회 연주곡 임)

(6) 연주수단(演奏手段)

각 악곡에 포함된 연주 수단을 각 악기군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악기(絃樂器)

찰현(擦絃)——아쟁(牙箏), 해금(奚琴), 거문고(玄琴), 가야금(伽倻琴), 양금(洋琴), 대쟁(大箏), 금(琴), 슬(瑟).

발현(撥絃)——향비파(鄕琵琶), 당비파(唐琵琶), 월금(月琴), 대공후(大箏篋), 소공후(小箏篋), 와공후(臥箏篋), 수공후(豎箏篋).

관악기(管樂器)

죽관(竹管)——대금(大筚篥), 중금(中筚篥), 당적(唐笛), 지(篴), 소(簫), 액(簫), 적(篴), 통소(洞簫), 단소(短簫),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 평소(太平簫), 생황(笙簧).

토관(土管)——훈(埙), 나각(螺角).

금관(金管)——나팔(喇叭).

타악기(打樂器)

편종(編鐘), 특종(特鐘), 방향(方響), 운라(雲鑼) 편경(編磬), 특경(特磬), 장고(杖鼓), 갈고(羯鼓) 자바라(嗒嗒囉), 징(鉦), 라(鑼), 대금(大金), 소금(小金), 팽과리, 박(拍), 축(祝), 어(鼓), 부

(缶), 진고(晉鼓), 절고(節鼓), 좌고(座鼓), 무고(舞鼓), 소고(小鼓), 교방고(敎坊鼓), 용고(龍鼓) 로고(路鼓), 로도(路鼙), 건고(建鼓), 삭고(朔鼓) 응고(應鼓), 중고(中鼓), 뇌고(雷鼓), 뇌도(雷鼙) 영고(靈鼓), 영도(靈鼙), 도(鼙).

이상 악기군(樂器群)에 따른 개개의 악기명을 들어 보았다. 대체로 악곡 형식에 포함된 연주 수단 중 악기군 계를 보면 이들 개개의 악기나 기악합주형식 및 상위의 개념의 악기군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

1. 국악의 연주수단 표시에 관한 견해

전술한 바도 있듯이 양악은 악곡의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 표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동일 악곡 형식에 연주수단만이 다른 악곡이 수종이 있어 동일작곡자에 의한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작품에 대한 동일한 통일표제를 표시하지 않기 위하여 연주수단의 기입이 불가결의 요소로 되어 있지만 국악 중 특히 구 한악의 아악곡의 경우에는 악곡의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원곡명 개개에 서로 다른 고유의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주수단의 표시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연주수단을 보기하는 것은 단순히 식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제에 악곡형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것이 고유한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구태여 연주수단 보기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악을 보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악중에는 원곡은 전하지 않고 이의 편곡이나 변주곡 등이 남아 있는가 하면(예를 들면 靈山會相) 어떤것이 원곡의 연주수단이고 어떤 것이 연주수단을 바꾸어 편곡한 것인지 문헌상에 명확치 않은 것이 있을 뿐 아니라(예를 들면 步虛子 이는 合樂과 管樂이 있음) 옛부터 연주수단만을 바꾸어 연주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예를 들면 念佛打令 이는 細樂, 併奏, 獨奏曲으로 연주되고 있다.) 비록 고유한 악곡명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원곡의 통일표제에도 공히 연주수단을 보기 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따라서 구 한악기 시대의 아악곡으로서 이미 상이한 연주수단에 의해 연주된 악곡이 있다면 원곡의 통일표제에도 연주수단을 보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大吹打 吹奏樂]

武寧之曲(舊軍樂)

新世紀 민 1240—2 1968

2. 통칙

연주수단의 표시는 대체로 특정한 것 3가지 요소까지 허용된다.

36) 張師勛 著. 上揭書 pp. 59—103 韓國藝術志 1卷 pp. 435—436 참조

레벨에 표현된 연주수단이 3가지 이상일 때는 아래의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들이 동일 악기군이라면 그 상위의 악기군(樂器群)을 기재하거나 혹은 이들을 표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연주자 표시에 포함시켜 표시하는 것이 좋다.

3. 기악합주곡

ㄱ. 연주수단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연주수단을 가, 나, 다 순으로 놓는다.

[念佛打令 단소, 양금과 피리]

獻天壽

公報室放送管理局 6 1959

ㄴ. 연주수단에 성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언제나 앞에 놓는다.

[장부가 여창과 가야금]

가야금병창 단가 장부가

(1965년 10월 2일 지성자 독주회에서 표제 채택)

ㄷ. 악기나 성악이 2부 이상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표제에 의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수를 연주수단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金 溶 鑽

[念佛還入變奏曲 가야금과 거거문고]

絃樂重奏念佛 도드리 變奏曲

(1965년 제6회 국악 연구발표회에서 표제 채택)

그러나 표제에 의해 그것이 명백할 경우는 연주수단의 수를 표시하지 않는다.

李 康 德

[3重奏曲 가야금]

가야금 3중주

(韓國藝術志 1卷 p. 435에서 표제 채택)

ㄹ. 완전한 기악합주곡

각 파트가 여러사람의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는 기악의 합주곡(혹은 중주곡)은 합악(合樂), 관현악(管絃樂), 이에 관현합주로 이루어진 실내악(室內樂, 卽 실내관현악), 관현합주(管絃合奏)를 포함한다. 현악(絃樂), 관악(管樂) 이에 삼현육악(三絃六樂)을 포함한다. 취주악(吹奏樂), 세악(細樂)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국악의 완전한 기악합주곡의 용어는<sup>37)</sup> 양악의 호칭과 다른 점이 있어 이에 관하여 몇마디 약술 하고자 한다.

합악(合樂)——양악의 orchestra와 같은 것이다. 이는 편경과 편종의 유무(有無)에 따라 관현악과 구

별되며 관악에 편경과 편종을 더 하던지, 관현악에 편경과 편종을 더한 것이 바로 합악이라 일컫는다.

관현악(管絃樂)——관악기와 현악기의 합주로 합악중 편경과 편종을 뺀 것이다.

현악(絃樂)——거문고, 가야금, 양금, 비파같은 순진한 현악기만의 편성이거나 혹은 이를 주체로 하고 세피리, 매금, 단소같은 그리 크지 않은 낮은 관음(管音)을 더하기도 한다.

관악(管樂)——우리나라 관악곡을 관악기와 더불어 해금과 아쟁같은 현악기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러한 관악곡은 피리가 들, 저, 해금, 장구, 북이 각각 하나인 여섯자비로 이루어 지기도 하는데 이를 달리 삼현육악(三絃六樂)이라고 한다.

세악(細樂)——이는 삼현합주(三絃合奏거문고, 가야금, 양금)나 병주(併奏)등을 통털어 이르는 말로 대금 또는 단소, 향피리, 해금, 양금 등 비교적 음향이 적고 보다 실내적인 음빛깔의 악기로 3~4까지의 적은 편성을 말한다. 본 논고에서의 세악이라 일컫은 것은 4개 이상의 악기로 편성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다.

步虛子 合樂

KBC 12

[步虛子 管樂]

長春不老之曲

新世紀 민 1240—1 1968

[靈山會相 絃樂 羽調界面調]

重光之曲

新世紀 민 1240—2 1968

池 暎 熙

吹打變奏曲 管絃樂

(1965년 시립국악 관현악단 제3회 정기공연의 연주곡 임)

李 成 千

合奏曲 細樂

(1965년 10월 6일 신국악 작곡발표회 연주곡)

ㄴ. 악곡의 주주(主奏)가 독주악기(혹은 복주)이고 이에 다른 연주수단에 의한 반주가 따를 경우는 독주악기를 선위로 하여 양쪽을 전부 기입 한다.

趙 在 善

[協奏 大笏과 管絃樂]

(1965년 제6회 국악 연구발표회 연주곡)

※ 양악에 있어서 합주곡은 원래 관현악 반주가 있는 독주곡이기 때문에 관현악 반주에 의한 독주악기일

37) 李惠求, 成慶麟, 李昌培 共著. 上揭書. pp. 656—663 참조

때는 독주악기명만을 기재하나 국악의 경우는 아직 이와 같은 형식이 갖추어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양악과는 달리 합주곡이라 하더라도 쌍방을 전부 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 독주곡으로 반주가 수반되지 않은 것은 독주악기명 뒤에 <무반주>라는 말을 기입 한다.

鄭 回 甲

[二重奏 가야금 무반주]

伽椰琴三重奏

(1965年 9월 27일 趙淸子 獨奏會에 연주곡)

사. 합주곡(合奏曲)으로 연주수단이 악기군(樂器群)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별악기로서 3개 이상 표현되어 있을 경우는 이들을 표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주자표시에 기입 한다.

李 成 千

合奏曲 細樂

오. 각 파트에 연주자가 각각 한사람씩인 경우의 기악곡(重奏曲)으로 3중주, 4중주, 5중주라는 말로 시작되든가 또는 그러한 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만일 연주수단이 악기군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개개의 악기명으로 기입되어 있거나 쌍방이 모두 기입되어 있을 때는 이들 개개의 악기가 3개 이상이라도 악기명으로 전부 기재 한다.

李 相 奎

[4중주곡 관악]

관악 4중주

(1965년 11월 발표)

스. 연주수단이 3중주, 4중주, 5중주라는 조합명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러한 말이 통일표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현악 4중주> 등과 같은 그에 해당하는 조합명을 기재 한다.

李 成 千

[敬調 가야금과 絃樂 4重奏 第1番]

가야금 散調를 위한 絃樂四重奏 第一番

(韓國藝術志 1卷 p. 436에서 표제 채택)

六. 필요에 따라 동종의 악기군을 표시할 때는 다음의 말을 사용 한다.

管樂器

笑管樂器

絃樂器

撥絃樂器

擦絃樂器

打樂器

(7) 산조(散調)

7. 산조는 독주곡으로(주로 거문고, 가야금 독주곡임) 장고의 반주가 빠르다. 만일 장고 이외의 연주단이 반주로 사용될 경우는 독주 악기명 다음에 이를 기재하고 그 뒤에 <반주>라는 말을 보기 한다.

[散調 거문고]

거문고散調

新世紀 SLN 10608

그러나

[散調 거문고 관현악 반주]

나. 독주악기와 그의 연주수단과 합주일 경우는 이를 명기한다.

[散調 가야금과 絃樂 4重奏 第1卷]

가야금 散調를 위한 絃樂 4重奏 第一番

(韓國藝術志 1卷 p. 436)

다. 산조에 반주가 수반하지 않을 경우는 <무반주>라는 말을 독주악기명 다음에 보기 한다.

[산조 가야금 무반주]

르.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 엇중모리, 휘모리, 단모리 등의 악장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느 한 악장을 발채했을 경우는 악장명을 채택하지 않고 조명(調名)을 표제에 포함 시킨다. (진양조, 중마리 등은 악장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 악장이 아니며 단지 음률(音律)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散調 거문고 진양조와 중모리]

거문고 散調 진양조上下 중머리上下

新世紀 SLN 10608

(8) 성악곡(聲樂曲)

국악의 성악곡은 일반적으로 단창(單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요즈음 국악연주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합창으로도 불리워지기도 하며<sup>38)</sup> 심지어 전통적 민요가락을 현대적 양악과 같은 성악으로 편곡하여 독창 내지 합창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다.

따라서 성악곡의 연주수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여러사람이 합창하되 전통적 노래가락으로 성부를 달리하지 않고 동일 음조일 경우의 연주수단은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

※국악에서의 합창은 사실 성부로 나누어 합창하지 않고 동일 음조에 의한 합창인 관계로 성악의 종별중 제창(濟唱)에 해당되었으나 국악에서는 원래 성부로

38) 국악대요. 서울, 국립국악원 pp. 19-24 참조





(1966년 제7회 국악정기연주회 연주곡)

ㄴ. 가곡의 반주는 원래 관현악 반주이므로 연주수단을 생략하나 반주가 관현악 이외의 반주일 경우는 이를 기대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반주>라는 말을 보 기 하며 반주가 없는 것은 <무반주>라는 말을 보기 한 다.

[歌曲一二數大葉 男性獨唱 거문고반주]

ㄷ. 가곡과 시조창은 단지 연주형식과 연주수단만이 다를 뿐 똑같은 시조시이기 때문에 이를 식별할 필요 가 있겠다.

가곡은 관현악 반주가 수반하고 시조를 5장 형식으로 하여 대어음(大餘音 後奏曲)과 중어음(中餘音 間奏曲) 이 있으나 시조창은 시조를 삼장형식으로 하고 반주가 따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동일 시조가 가곡형식으로 취입이 되어 있는 가, 시조창 형식으로 취입되어 있는가를 구별하기 위 하여 <가곡>, 혹은 <시조>라는 말을 보기 한다.

청산리 벽계수야 여성독창 가곡

新世紀 민 1240—3 1968

청산리 벽계수야 남성독창 시조

新世紀 SLN 10607

ㄹ. 가곡은 개별 시조명으로 통일표제를 잡아주는 것이 원칙이나 2편 이상의 시조를 엮어 이를 가곡의 개별 곡명으로 표기하였을 경우는 가곡이라는 말을 통 일표제로 하고 그 개별곡명을 테두리 연결 한다.

[歌曲一初數大葉 男性獨唱 羽調]

男唱歌曲羽調初數大葉

(1966년 9월 27일 趙淸子 獨奏會 연주곡)

ㄹ. 가곡의 통일표제 채택은 시조가 대부분 운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의 첫부분 1음절(초장의 내구(內句))로 하든지 3자~10자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창이 밝았느냐]

혹은 [동창이]

[소년행락이 다 진커든]

혹은 [소년 행락이]

## 2. 시조(時調)

ㄱ. 시조는 보통 무반주이나 반주가 있을 경우는 그 연주수단을 기재하고 <반주>라는 말을 보기 한다.

바람아 들라라 남성독창 시조

新世紀 민 1240—5 1968

그러나

[동창이 밝았느냐 남성독창 피리반주]

ㄴ. 시조의 통일표제는 가곡처럼 그의 첫부분 1음절 (초장의 내구(內句))로 하든지 3자 내지 10자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가곡의 예문 참조)

[주렴에 달 비치었다 男性獨唱 時調]

주렴에 달

新世紀 민 1240—5 1968

혹은

[주렴에 달 男性獨唱 時調]

주렴에 달 비치었다

新世紀 SLN 10607

ㄷ. 시조도 개별시조명으로 통일표제를 잡아주는 것 이 원칙이나 2편이상의 시조를 엮어 이를 시조의 종류 별 이름으로 표기하였을 경우는 시조라는 말을 통일표 제로 하고 고저음조의 표시를 뒤에 보기 한다.

시조의 종류는 고저 장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 어 진다.

平時調

中學時調(중허리時調)

지름時調

女唱지름時調

辭說時調

梅調時調

半辭說時調

辭說지름時調

羽調지름時調

男唱지름時調

[時調 辭說 男性獨唱]

[時調 男唱지름 男性獨唱]

## 3. 가사(歌詞)

지금까지 전해오는 가사는 12개가 있다.

가사가 관현악 이외의 연주수단에 의해 반주될 때는 이를 표제에 포함시키고 <반주>라는 말을 보기 한다.

[백구사 男性獨唱 絃樂伴奏]

그러나 이에 반주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는 <무반주> 라는 말을 보기 한다.

## 4. 판소리(唱劇)

판소리는 원래 한사람이 복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 는 것이었으나 점차 전해 오면서 많은 사람의 배역의 분담으로 연창되게 되었다.

ㄱ. 판소리가 한사람에 의한 단창일 경우는 연주수단 을 독창곡(남창, 여창)과 같이 하던지 연주자표시에 기 입 한다. 이는 오늘날의 창곡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다.

水宮歌 女性獨唱

新世紀 민 1240—18—19 1968

그러나

水宮歌

大都 TPS 901—2

(이는 5인의 배역에 의한 창극이다.)

수인의 배역으로 된 판소리의 연주수단은 연주자표시에만 표시 한다.

ㄴ. 판소리는 북의 장단에 맞추어 연창되는 것이나 북 이외의 연주수단에 의하고 반주가 있을 때는 이를 표제에 포함하고 뒤에 <반주>라는 말을 기입 한다.

[春香傳 관현악반주]

春香歌

(1965년 5월 25일 민속악의 향연에서 연주 됨)

5. 병창(併唱)

ㄱ. 병창은 독주악기의 연주와 더불어 독창하는 것으로 연주수단은 성악(독창 및 합창곡의 연주수단의 기입법과 같다)을 앞에 놓는다. 합창일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沈淸傳—沈奉事방아打令 男性獨唱과 가야금

新世紀 SLN 10607

ㄴ. 병창에는 원래 장고의 반주가 따르는데 장고 이외의 연주수단이 반주로 사용되었을 경우는 이를 명기 하고 그 뒤에 <반주>라는 말을 보기 한다.

새타령 여성독창과 가야금 관현악반주

(1965년 5월 25일 민속악의 향연에서 연주 됨)

6. 민요는 반주가 일정치 않으므로 반주명을 기입치 않는다.

태평가 여성독창 민요

大都 TPS 903 1968

(9) 식별을 위한 요소

동일 작곡자에 의한 상이한 두개 이상의 작품에 동일한 통일표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 악곡의 형식을 나타내는 말이 표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그것을 식별할 보조적 기술이 필요 하다.

이러한 작품에 대하여는 연주수단을 보기 하던지 혹은 이들 작품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적당한 설명구를 보기 한다.

[靈山會相 絃樂 羽調界面調]

重光之曲

新世紀 민 1240—2 1968

태평가 여성독창 민요

大都 TPS 903 1968

[태평가 혼성합창 가곡]

歌曲太平歌

(1966년 광복주년 경축국악의 밤 연주곡 입)

이러한 식별법에 의해서도 전혀 혼동이 일어날 경우는 다음에 의한 식별요소를 부가 한다.

ㄱ. 축차번호

이는 신 한악시대의 작품에 많다. 통일표제의 작품

으로 동일 연주수단에 의한 것은 그것에 축차번호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를 기재 한다.

[6중주곡 관현악 제1번]

실내악 6중주 No. 1

(韓國藝術志 1卷 p. 436에서)

ㄴ. 조(調)

동일표제로 상기의 식별법에 의해서도 식별이 되지 않을 경우는 조(調)를 표시 한다.

국악에서의 조형식에는 羽調(長調에 해당), 界面調(短調에 해당), 平調, 變界面調가 있다.

[靈山會相 絃樂 平調]

柳初新之曲

公報室 放送管理局 33—34 1959

[靈山會相 管樂 羽調界面調]

表正萬方之曲

公報室 放送管理局 28—29 1959

ㄷ. 기타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위의 식별법 등을 적용하여도 식별되지 않을 경우는 레코드사명이나 초판 발행년을 보기 한다.

<參考文獻>

1. 孫正彪. “클레식音樂레코오드의 標題事項의 記述에 關한 研究” 國會圖書館報 1967年 6月號 pp. 12.
2. 孫正彪. “레코오드目錄의 標目選擇에 關한 研究” 國會圖書館報 1967年 6月號 pp. 16—33.
3. Library of Congress.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pp. 75—95.
4. 張師勛 著. 國樂概要. 서울, 精研社, 4294.
5. 成慶麟 著. 朝鮮의 雅樂. 서울, 博文出版社, 1947.
6. 韓國藝術志 1, 2卷. 서울, 大韓民國藝術院, 1966—1967.
7. 李昌培 編. 歌謠集成. 增補. 서울, 靑丘古典聲樂學院 4294.
8. 李惠求, 成慶麟, 李昌培 共著. 國樂大全集. 서울 新世紀레코드株式會社出版部, 1968.
9. 李惠求 著. 韓國音樂研究. 서울, 國民音樂研究會 1957.
10. 張師勛 著. 國樂論攷.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6.
11. 咸和鎭 著. 韓國音樂小史. 서울, 通文館, 4292.
12. 국악대요. 서울, 국립국악원. (n.d.)
13. 歌曲選. 京城, 新文館, 大正2(1913)
14. 韓國藝術總覽; 資料篇. 서울, 大韓民國藝術院, 1965.
15. 韓國國樂學會 編. 韓國國樂器圖說. 서울, 東新文化出版社, 1966.